

나의 學究生活과 論文執筆

金 東 旭

(檀國大 國語國文學科 教授)

편집진에서 나에게 논문 집필에 얽힌 체험담을 써달라고 한다. 이런 체험담은 眞所謂 孔子 앞에 문자를 쓰라는 격이 되겠기에 망설였으나, 다른 논설로 어쩔지 않게 투정을 부리기보다는 소경 계 닭 잡아먹기로 죄될 것이 아니기에 이런 논제로 그대로 쓰기로 하였다. 독자가 교수들이 이런 잡지에 이런 글을 쓴다는 것 자체가 착오도 이만저만이 아니겠지만, 학생을 지도한다는 면에서 他山之石이 될지도 모르겠다.

요즈음 발간된 精神文化研究院의 「韓國學研究人名錄」을 보니 나는 아직까지 인문과학 계통에서는 논문 집필 편수에 있어 心岳 李崇寧박사와 高大의 崔在錫교수와 더불어 서로 伯仲을 이루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池憲英교수가 “金某의 논문으로 뒤까지 남을 논문이 한 편이나 될까” 하고 비판한 적이 있으니, 徒能多를 자랑해도 소용없는 일일지 모른다. 더구나 젊은 후배들 중에는 “김某的 專攻이 무엇이나?”하고 성토 비슷한 비판도 들려온다. 그만큼 나의 논문테마 자체는 칼라가 다양하다. 國文學 전반과 服飾과 古文書와 歷史 民俗과 叢誌까지 이런 다양한 테마를 구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초창기적 성격을 드러내는 것이지만, 170편의 논문을 쓸 수 있었다는 것은 나의 학문의 성격도 성격이려니와 아이디어 메이커라고 자화자찬해도 어느 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줄 사람도 있을 것

같다.

나는 학생들을 보기만 하면 “지금 무슨 논문을 쓰고 있나?”라고 묻곤 했지만, 시원스럽게 이를 받아주는 학생이 드물었다는 것은 안타깝기만 하다. 그리고 나는 학생들에게 “논문은 발로 써라”라고 항상 타이른다. 발로 논문 테마를 찾아다니는 성의가 없이는, 또 原典을 파고드는 實證性이 없이는 驚天動地의 논문을 쓰겠다고 하더라도 徒爲로 끝나고 말 것이다.

요즈음 서구 이론의 아덱테이션으로 종시하고 있는 논문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나, 이때서는 자기 獨創의인 경지를 기척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론을 알더라도 이를 아래에 깔고 자기 것으로 하여 쓰면 될 것이다. 이런 면에서는 趙東一교수의 논문 집필 방법은 옳은 것 같다. 간혹, 내가 이미 언급한 것을 딴 말로 바꾸어서 표현하면서 내 논문을 보았다는 注釋가 없는 것은 약간 서운하지만, 그만큼 傳統이 이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국문학 논문 집필자도 국내 선배의 전통을 잇기보다는 서구 이론의 계승을 자랑으로 삼고 있으니 學閥이 제대로 형성될 리 없다. 辨證法的 止揚을 國外에서 구하지 말고 국내의 학설에서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의미에서 나의 주논문 「관소리 발생고」는 그 아이디어를 가람 李秉岐선생과 동배 金三不의 몇 줄에서 빌리면서 나는 2만여 매의 논문을 쓸 수 있었다.

요즈음도 여러 후배로부터 이 논문에 대한 修正을 挑戰받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하나의 파라다임으로 존립하고 있는 것은 그 방어벽이 두껍기 때문이다. 이는 내가 이미 언급한 바, 논문은 논문으로 저서는 저서로 대항하라는 선언에 아직 도전자가 없기 때문이다. 2만 배의 논문에는 360만 자의 글자가 들어 있다. 그러므로 그 攻略에는 진일배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옆에 구멍 하나를 뚫어 놓고 城이 허물어졌다고 생각하면 잘못이다. 더구나 내가 발의한 것이나 발견한 것에 전적으로 힘입은 博士論文도 몇 편 나왔는데, 나에게서 暗示받았다는 것을 논문에 쓴 것은 별로 보지 못하였다. 이것이 또한 한국적인 風土인 것 같다. 이웃 나라 일본만 하여도 논문의 처음에 研究史 비슷한 프롤로그가 반드시 들어가는데, 우리 나라에서는 그런 논문을 대하기가 극히 드물다. 이것도 전통이 없는 하나의 증거이다. 개중에는 나의 논문의 肯定的인 부분에 대하여 일언반구의 언급이 없으면서 내 논문의 年代의 틀림이나 氏名의 틀림 같은 것을 꼬집기에 급급하고 있는 것을 보면 微苦笑감이다. 이런 논문에 얽힌 여러 가지 이야기를 쓰자면 한정이 없을 것이다.

정년 퇴직한 韓洵勳박사가 書評誌를 하나 있으면 하기에 “어디가 맞아 죽을려고 그러시오. 도대체 한국에서 그런 것이 성립될 것 같아요?”라고 하였지만, 이 서평이 성립되지 않는 한국의 현실은 학문이란 이름으로 우리 모두 반성해 봄직하다. 나는 50년째 말에 다른 지상에 발표한 바 있는 글을 보지 않고 잡문을 쓴 모씨에게 “학문이란 고립할 수 없다”라고 꼬집어 평생 원수가 될 것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文敎部敎授研究費로 생산된 논문을 일괄 심사한 적이 있었는데, 그 연구비 자체의 존립 가치도 문제인 것 같다. 오히려 생계비로 나누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이다. 학교에 따라서는 이 연구비가 진실로 공부하려는 학자를 외면하고 정책적으로 配定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1년에 40억이란 거대한 예산을 지급하는 문교부의 사업이지만, 우리에게 그런 연구비가 없을 당시 미국의 하바드 엔칭 학회에서 몇백 불씩 받고 썼던 논문

의 질이 더 높았다고 생각되어지는 때가 많다. 내가 韓國服飾史의 새 후술 연 韓國研究院의 「李朝前期服飾研究」도 당시 한국연구원에서 받은 몇십만 원의 연구비로 쓴 논문이었다. 이것으로 1,300매의 개척적인 저서를 쓴 셈이다. 오히려 연구비를 전국적으로 떠 돌리는 식으로 나누어 주느니보다 委員會를 만들어 一元적으로 나누어 주는 것이 좋을지도 모르겠다. 文敎部가 하기 어려우면 學術院 같은 데에 위촉해도 좋을 것이다. 그런 용기가 없다면 매년 각 學會誌, 대학 學術誌에 발표된 논문에 대하여 엄격히 심사하여 포상하는 제도 같은 것도 필요할지 모르겠다. 나도 과거 30년 동안 여러 곳의 연구비 供與委員會에 관여한 적이 있지만, 연구비 달라고 운동하는 사람치고 좋은 논문을 내는 사람은 드문 것 같다. 어떠한 방책이든간에 오늘날과 같은 떠 돌리기식의 연구비 배정은 지양하였으면 좋겠다.

더구나 民族文化推進黨에서 하고 있는 國譯事業이 北韓의 실적에 크게 뒤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40억만 그 쪽으로 돌리면 北韓에서 完刊하였다는 朝鮮王朝實錄 번역을 알지 못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내가 맡고 있는 東洋學研究所에서 진행하고 있는 漢韓大辭典의 편찬만 하더라도, 한 대학의 연구소에서 17년의 세월과 70억의 돈을 들여 진행하고 있는 것이지만, 이것이 완성될 때의 파급효과를 생각하면 政策的인 면에서 支援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각설하고, 본론으로 돌아가서 나의 논문 집필 이야기를 하려니 먼구스름기 그지없다.

나는 6·25 후에 溫陽에서 完板本 春香傳 坊刻本을 하나 구했다. 동학 金三不이 완판본 板本을 수백 장 가지고 있던 것을 부러워했던 차라, 그것은 84장의 한지책에 불과하였지만, 6·25로 책을 분실한 나에게서는 가뭄에 단비를 만난 격이 되었다. 그러다가 부산에서 一簣 方鍾鉉선생이 돌아가시며, 그 책 정리를 하고 있던 중 춘향전의 이본을 19종 발견하고 나의 가슴은 뛰었다. 그러나 그 책을 볼 수 있는 처지는 아니어서 전기 완판본을 가지고 부산에서 한 겨울방학 세를 한 결과 200매의 논문을 쓸 수 있었다. 이것을 가지고 부산 大廳洞 醫大 강당에서 발표회를 가졌다. 비오는 날이었지만 70명의 청중을 모아놓

고 장장 3시간의 긴 발표회를 가졌다. 이것이 6·25후의 最初 最長의 발표회가 아니었던가 생각된다. 발표하고 나오려니 머리 벗어지고 피어 멀진 친구가 인사를 한다. “오늘 발표회 참 좋았오.”라고……. 이 사람이 현재 德成女大 學長 洪雄善박사이다. 이 한마디에 3시간의 열변의 노고가 싹 가시었다. 이후에 이 논문에 새끼가 치고 꼬리가 달려 50년대 중반에서 1,000매가 되고 다시 지금은 20,000매는 넘는 것 같다. 이것이 「韓國歌謠의 研究」, 「春香傳 研究」 등의 책으로 나오기까지는 15년이란 세월이 걸렸다.

1953, 4, 5년에는 文理大 강사 겸 助敎를 하면서 연구실에 있는 10,000권의 책과 규장각의 수십만 권의 책과 「일사文庫」 「가람文庫」의 장서를 마음대로 읽을 수 있었다. 1주 30시간의 시간 강사 노릇을 하면서 그야말로 불확실한 시대였지만, 朝鮮王朝 實錄을 읽을 수 있었던 것도 오늘의 나의 雜家の 資質을 기르는 데 충분한 시대였다. 나는 이만한 책을 볼 수 있는 행운을 공여받은 것이지만, 이것과 비길 때, 오늘의 교수 예비군 조교들을 볼 때에 보기 안됐다. 그들은 책이 없는 연구실의 사환 노릇으로 중시하고 있으니 나중에 교수가 된 뒤에 어떻게 될까 생각하면 한심하기 그지없다. 그래서 그들이 배우는 것은 교수간의 줄다리기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그런 대학원생에게,

“모든 일에 正攻法을 써라.”

“모태학의 아무개가 될려고 하지 말고 대한민국 또는 동양의 아무개가 되라.”

고 타이르지만, 그것은 空念佛에 불과하다.

이것은 학문의 예비단계에서 뿌리가 박혀 있지 않기 때문이다. 바로 메마른 땅에 난 식물과 같이 학문의 밑바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 책을 가까이 할 수 없는 환경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서 그때 전국에 10여 부밖에 없었던 實錄을 읽을 수 있었다는 것은 나의 그 뒤의 학문 방향을 결정지어 주었다. 그 뒤에 國史編纂委員會에서 왕조실록의 縮刷版이 나와 많은 학자가 이를 구입하고 있지만 이를 읽는 학자가 몇 명이 될 것인지는 의심스럽다. 과거의 여전 보다는 손쉽게 읽을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었으면서도, 이 實錄學은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

는 것 같다. 그것은 요즈음 논문이 실록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남의 논문을 읽고 그 논문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分類實錄의 작업도 그동안의 30년 동안 아무런 진전이 없다는 것은 국사편찬위원회에서도 한번 반성해 봄직하다. 내가 처음 이를 읽을 때는 제록스 기술도 없던 때라, 내가 페이지와 행간을 명시해 주면 중학교 다니던 딸이 이를 배웠다. 이런 데서 이루어진 것이 「李朝前期服飾研究」이다. 나중에 다시 本文과 대조는 하였지만, 이런 작업은 그야말로 수공업적 시대의 아득한 추억이다. 그러나 이런 작업으로 해서 전혀 실록을 읽을 수 없는 가정과 교수들에게 한 국부식사의 걸잡이를 마련하여 준 것은 나의 시대적 사명으로서 충분하였다고 자부하고 있다.

다음으로 나의 학계에 대한 공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국문학도를 위한 坊刻本 小說의 蒐集 刊行이다. 古小說板刻本全集 5책은 전 세계에 있는 방각본 소설을 수집하여 학계에 소개한 것으로 아직까지는 결정판으로 자부하고 있다. 다음이 小說寫本의 수집이다. 이제까지 수집한 小說寫本이 700책 되지만 이것만으로 국내 몇 책의 수집이 될 수 있고, 이 수집을 위하여 3,000권의 한적을 부수적으로 사지 않을 수 없었다. 이 결과 도합 10,000권의 장서를 가지게 되었지만, 나는 이런 사본을 研究室에 갖다 놓고 필요한 학생들에게 제록스해 주고 있다. 학자 중에는 門外不出로 자료를 사장하는 이가 가끔 있는데 이런 점은 재고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수집의 落穂로 古文書蒐集을 시작하여 4,000점을 수집하여 내가 한국에서는 古文書의 樣式的 研究의 개척자가 되었다. 그 뒤에 이런 저서를 낸 다른 저서와 내 시스템을 대조하여 보았더니 몇 점의 차이밖에 없었다. 그러면서 나의 논문에 대한 언급은 단 한 줄뿐이었다. 이런 점은 학문하는 사람으로서 한번 생각해 볼 일이라고 본다. 이 내 논문은 嶺南에서 蒐集한 文獻를 곁들여 작으나마 古文書集眞으로 출간하였다. 국문학자와 고문서—이런 기묘한 결합은 바로 내가 일제시대 法科 학생이었다는 것으로 얻어진 하나의 반대급부였다.

이런 고문서나 서책을 수집하다 보니 때로는

新出資料 같은 것도 많이 학계에 보고하였고, 그 중에는 작품이 고등학교 교과서에까지 실리게 된 것도 있다. 그러나 이런 신출자료를 학계에 보고하면 그것이 常識이 되는 것이고 이것으로 논문 집필자의 노고는 갚아지는 것이고 바로 고고학의 발굴과 같은 것이나 궁극적으로는 민족 문화에 대하여 기여하는 것이니 그것도 하나의 보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자료라는 것은 언제나 소중한 것이다. 그래서 나는 내 논문 집필에 소요되지 않는 것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논문을 집필할 수 있도록 빌려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런 자료를 빌려주어 논문 집필케 한 인사 중에는 劉元東교수, 韓祐勸교수, 張師勛교수 등과 많은 후배들이 있다. 이런 의미에서 자료는 萬人 共有의 것이라는 것이 나의 신념이다.

이렇게 쓰자니 정당인의 업적 발표같이 지나치게 과장된 것 같다. 누구나 다 경험하는 바이지만, 학자 생활을 하면서 스텝에 빠질 때도 있었고, 붓을 쥐고 싶은 때도 많이 쥐었고, 교직 생활을 그만두고 변호사가 되어 보겠다고 작심한 때도 있었고, 선친으로부터는 언문을 연구해서 무엇하느냐고 질책을 받은 적도 있었다. 또 요즘에 와서는 韓中日 三國生活比較文化史를 연구해 보겠다고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면서 시간에 쫓기어 연구비 받은 것을 후회해 본 적도 한두 번이 아니다. 지금 3년 연기를 하고 있으나 안 되면 반납할 작오는 되어 있다. 그 연구비 자체가 1년을 기한으로 하고 있는 것은 불합리한 것 같고, 그러면서 文價가 얼마 얼마다라고 책상 앞에 써 붙여 놓고 초조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이것도 研究補助員制度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한국의 현실에서 일어나는 문제일 것

이다.

이제 나는 경리기에 들어섰으니 앞에 거들은 과장(?)들은 애교로 받아 주면 될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논문을 많이 쓸 수 있었던 하나의 비결은, 나는 이를 베트콩식 전법이라고 명명하고 있지만, 한번 거둔 논제는 다시 되돌아다 보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데에 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이를 반박하면 한번 웃어버리면 그만이다. 항상 새로운 테마를 찾아 전진할 뿐이다. 學海라고 할 만큼 학문의 세계는 무변 대해와 같은 것이다. 궁극적으로 생각해 보면 無一物의 生涯이지만, 한 사람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니, 내가 미진하게 개발한 것은 다음 사람에게 밀려 되는 것이다.

나는 논문을 쓰는 동시에 잡문도 사양하지 않는다. 국민교양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것이라면 사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나 자신 하나의 인간이기에 실패도 있고 부족함도 있을 것이지만 너무 고고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써야 할 잡문과 써서는 안 될 잡문은 구별해야 할 것이다. 보통 학자는 40세에서 그 진로가 결정된다고 한다. 학자로 나갈 수 있는 사람과 행정가로 나가는 사람과……. 나는 지금 연구소의 소장직을 맡고 있지만 평소에는 과의 과장밖에 그 이상의 행정직을 맡아본 적이 없다. 이것이 나의 학자 생활에서 자랑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한 가지 빼어 놓을 수 없는 것이 있다고 하면, 나는 高麗靑瓷 1,000년의 도정 속에서 청자 發色이 陶磁器 釉藥 속에 2%의 Fe_2O_3 가 들어가면 된다고 그 성분을 발표하게끔 유일한 사람이라는 것도 웃지 못할 현실이다. 역설적인 정기와 장수로 나는 자부하기 때문에 이런 글도 써 본다. *